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풀뿌리 토론을 위한 워크숍

일시 ● 2015년 6월 20일(토) 오후 1시~4시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 강당

# 순서

---

■ 등록	
------	--

---

■ 들어가며	03
416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 풀뿌리토론	06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매뉴얼	

---

■ 토론자료	12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기 위한 토론 자료	

---

■ 추진계획 및 진행경과	21
416인권선언운동의 추진 계획 및 진행경과	

---

■ 함께해요	24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	

---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모두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약속을 지킵시다. 참사 이전의 사회와 단절을 선언하고, 참사 이후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밝히자고 제안합니다.

### 1.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현실을 기억합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 외에 우리는 아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따로 또 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2.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존엄을 훼손하고 무시한 결과,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고, 여전히 그 사회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의 보호에 골몰하며, 어떤 이들은 공감과 연대보다 모욕에 익숙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개개의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맞물려 우리를 억압하는 힘을 더욱 발휘하는 구조임을, 우리는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구

조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몇몇 문제에 그치지 않는 구조 자체입니다. 혼자서 조심하고 피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구조가 견고할수록 우리는 더욱 손잡고 연대해야 합니다.

### **3. 무엇이 안전인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우리가 말합시다!**

누구나 존엄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할 안전은 어떤 가치인가요? 누군가 나서서 지켜주기를 바라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제각각 경쟁하며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고 참사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에 더욱 큰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에 맞서 근원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안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하려는 공포와 비참으로부터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 안전입니다. 구조적 억압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며 실천하는 연대가 안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려는 안전이 무엇인지 충분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특 하면 말해온 안전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평등, 연대를 해쳐왔기 때문입니다.

### **4.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잊어왔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못이긴 척 정부가 나서서 누군가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잊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보상이 부족한가보다 하고 남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진실과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거래나 선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와 그 가족들, 그들을 돕거나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우리가 어느새 우리를 위협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곧 우리의 권리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 **5. 다른 사회를 열기 위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슴 한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안함은 무엇에 대한, 무엇을 향한 미안함일까요? 혹시 누군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대신 나눠 진 채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권의 시선으로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꽃대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구조

에 개입된 기업, 언론 등의 행위주체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우리의 미안함은 우리를 짓누르는 상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질 때, 우리는 참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행동은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 **6.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행동입니다!**

권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가 인권입니다.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이미 제시하는 수많은 권리들은 누군가의 치열한 투쟁이 남긴 기록입니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우리 스스로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달라져야 할 것을 고집하는 세력에 경고하며 우리의 권리를 현실에 새깁시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 자유로운 표현과 결사,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 등 우리 스스로 인권의 목록을 써내려갑시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함께 배우면 되고 부딪치는 의견이 있다면 함께 토론하면 됩니다. 세상을 바꿔온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박한 상식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인권선언을 선포합시다.

그때까지 함께 선언할 사람들을 조직합시다.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는 작은 간담회를 열어 첫발을 떼어주시시오.

##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안내 매뉴얼

1.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3.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4. 이렇게 결과를 정리해주세요.

### 1.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풀뿌리토론은 2016년 4월 선포하려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와 조건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에는 416인권선언의 주요 키워드인 존엄, 안전, 인권, 선언 등이 이미 있습니다. 풀뿌리토론은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생생한 말로 나누며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들을 길어 올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와 그동안 반복되어온 재난, 참사 등에서 벗어나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달라져야 할 것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풀뿌리토론을 통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촉발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흩어진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각자의 시선으로 마주했던 ‘4.16’의 의미를 공통의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참사의 경험을 통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통의 감각을 확인하고, 4.16인권선언에 담겨야 할 내용을 권리의 언어로 엮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존엄, 안전, 인권, 선언의 의미가 각자의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풍부해지고, 앞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극과 영감을 얻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위와 같은 풀뿌리토론의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갈지 막막한 분들은 아래 안내되는 기본 프로그램을 참고하세요.

### **풀뿌리토론 기본 프로그램의 흐름**

#### **1) 추모의 시간 (5')**

함께 묵상해주세요

#### **2) 416인권선언운동 소개 및 토론수칙 안내 (15')**

참여자들에게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토론을 제안해주세요. 참여자들 모두가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칙을 공유해주세요.

\*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상영용 영상이 있으니 활용하세요.

#### **3) 풀뿌리토론 프로그램 진행 (80')**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세요.

#### **4) 마무리 (10')**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갈무리하며 권리 풍선을 만들고 마무리해주세요.

\* 참여자들의 소감을 듣거나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아도 좋습니다.

## **2.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 **<준비물 및 사전 체크 사항>**

- 포스트잇(7.6cm\*7.6cm 이상, 세 가지 색깔이면 질문 별로 나눠줄 수 있어요)
-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지우개(참여자들이 적은 포스트잇을 화이트보드에 붙여놓고 함께 보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요)
- 모둠별 자리배치. 각자 고른 발언 기회를 갖기 위해 모둠 인원은 6~8명 정도로.

### **<참여자들과 나눌 질문 3가지>**

- 1)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나의 느낌/감정은 oo이다.”
- 2)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현상/문제는 oo 이다.”
- 3)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인권이다. 2번에서 말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ooo할 권리이다.”

### **<진행방식>**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포스트잇에 적는 시간을 가진 뒤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공유가 다 끝난 뒤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다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질문 한 개당 각자 포스트잇 한 장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질문 해제>

1)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나의 느낌/감정은 oo이다.”

- 이 질문의 의도는 인권선언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말문을 틀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분노’든 ‘무기력’이든 ‘슬픔’이든 서로의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세월호 사건이 공통의 경험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자신이 떠올린 느낌과 감정의 기원을 떠올려보면서 자연스럽게 2번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현상/문제는 oo 이다.”

- 이 질문은 세월호가 단순 사고가 아닌 인권침해의 문제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경험한 일 중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찾고 어떤 가치가 부재했는지를 살피기 위한 질문입니다.

- 가령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묻지 않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로 묻은 이유는 문제의 경중을 위계화하거나 사회적으로 자주 언급됐던 전형적인 지적들로 논의가 한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입니다. 이 질문에 “기레기 언론”이란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다는 것도 눈치 보였던 일”처럼 좀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이후 3번 질문에서 권리를 찾는 논의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3)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인권이다. 2번에서 말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ooo할 권리이다.”

- 이 질문은 416인권선언에 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구체적 표현을 함께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혹시 인권이란 것 자체가 아직 생소한 분들에게는 인권이 거창하고 무거운 뭔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자명한 원칙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 인간의 존엄성은 법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통의 감각을 버리고 인권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이라고 했을 때 가령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이 법전에 나올 법한 용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기도 쉬운데 그러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란 단어보단 ‘말대꾸했다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권리’가 그들의 삶에 더 가닿는 말인 것처럼, 416인권선언에 들어갈 권리를 찾는 작업도 앞서 1,2번 질문에서 답했던 각자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입에 붙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요한 권리를 적다 보면 ‘좋은 건 다 권리’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맥락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럴 땐 “이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선 어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혹은 다른 어떤 권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보면서 논의를 심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그래도 권리란 단어로 표현이 되다보면 추상적인 단어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땐 참여자가 발표할 때 들리는 구체적인 키워드들을 진행자가 적어두었다가 그 단어에 대해 더 논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 3.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느끼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수칙을 미리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토론 수칙은 토론 구성원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잘 나누기 위해 함께 지키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물론 수칙은 수칙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416인권선언의 주요한 기초가 될 모두의 경험과 생각들이 잘 모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수칙을 참고하세요.

- ☞ 토론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질문/요청을 잘 숙지한 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 토론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원 스스로 발언 내용을 메모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 ☞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이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토론 중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 바랍니다.
- ☞ 참가자 모두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1가지 주제에 대해 각자 최대 3번의 발언권을 갖도록 합니다.
- ☞ 의견 발표 전에, 포스트잇에 발언할 핵심 주제어(키워드)를 적고, 제시합니다.

### 4. 이렇게 결과를 정리해주세요

풀뿌리토론을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풀뿌리토론 결과가 잘 모일 때 우리는 함께 416인권선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아래 빈칸을 활용해 메모를 해두시고 토론이 모두 끝난 후 결과를 정리해서 416declaration@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풀뿌리토론 결과는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 <풀뿌리토론 개요>

* 언제_	
* 어디에서_	
* 누구와_	(함께 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대략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 만약 기본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뿌리토론을 진행했다면 프로그램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풀뿌리토론 결과>**

1.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세월호 참사를 어떤 감정으로 겪었나요? 각자의 경험을 표현한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2.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과 짚어본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견 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등 참여자들과 함께 찾은 장면이나 현상, 문제의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3.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권리들을 제안했나요? 참여자들 각자가 적은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나 각자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3-1)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거나 공통적으로 말한 권리들은 무엇인가요?

3-2) 참여자가 제안한 권리 중 가뭇겨려지는 권리들은 무엇이었나요? 제안의 이유나 수궁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떤 토론이 진행되었나요?

3-3) 참여자들이 앞서 짚었던 문제들 중 권리로 주장하기 어렵거나 막막한 채로 남은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 풀뿌리토론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 풀뿌리토론을 마친 후 함께 만든 권리풍선과 참여자들의 사진을 한 장 이상 보내주세요.

<풀뿌리토론 +@>

\* 풀뿌리토론 결과와 별도로 참여자들의 소감이나 후기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416인권 선언 홈페이지 메시지 란을 이용하시거나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기본 프로그램이나 후속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 토론이 필요하거나 간담회, 인권교육 등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직접 풀뿌리토론을 열겠다는 참여자가 있으면 추진단 등록을 안내해주시고,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은 참여자가 있으면 메일주소를 받아서 알려주세요.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기 위한 토론자료



### 1. 416 인권선언제정을 위한 전국단위 토론을 제안하며

416참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이긴 한 건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존엄의 가치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버려지고 아픔은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진실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돈이면 다된다는 뒤흔어진 가치관으로 권력과 기업이 거대한 참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 미리 손잡지 못했습니다. 인간 존엄가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가슴이 멍멍해지도록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이제라도 힘을 모아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할 권리들 그러나 빼앗긴 권리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확보 받을 권리, 생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요구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물질적 배상과 정신적 위로를 받을 권리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치권, 기업, 그리고 일부 단체들은 416참사 이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진실은 은폐하고 책임자의 반성과 사과는 없으며 같은 인간으로서 겨우 잡은 손을 거두어들 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또 다른 참사는 어디에선가 준비될 것이며 우리 중 누군가는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또다시 정부와 언론의 최면에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빼앗기고 살지 않기 위해 416 참사가 우리에게 상기 시켜준 인권에 대해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로 말할 때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목소리로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 2. 전문에 관하여

인권선언의 전문(前文, preamble)은 문서를 작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목적과 이유,

문서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간략한 소개 등을 담습니다. 성안팀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참사에 대한 진단, 참사의 구조에 대한 인식과 분노와 비판, 그것을 변혁하기 위한 방향 등을 담아 아래의 예시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 1) 전문에 담겨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식과 표현에 앞서, 선언을 선포하는 모두의 마음과 인식을 담아 꼭 드러나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 2)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진단하며, 무엇에 분노하나요?
- 3)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교훈으로 무엇을 바꾸길 원하며, 그때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 (예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생명과 존엄성이 모든 법과 제도, 가치와 신념, 계획과 실천의 기초임을 확인하며,  
이 기초를 무시하고 훼손한 결과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여러 참사였음을 반성하고 통탄하며,  
이윤을 최고로 여기고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는 세태를 지켜만 보고 내버려 둔 시민의 정치적 책임의 회피가 그 원인임을 인정하며,  
여러 참사에서 드러났듯 우리를 덮치는 위험은 연대가 무너진 사회와 실종된 정치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이런 위험은 제각기 조심하고 피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근본적이고 거대한 것임을 절실하게 느끼며,  
그간의 참사 책임에 대해 모든 게 운명이며 모두가 죄인이란 식으로 몰타기로 대응해온 사이비책임론을 거부하며,  
세월호 참사 등은 정부와 공직자 및 해당 기업이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사안임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확인하며,  
모든 참사의 피해자에게는 진실을 밝힐 권리,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징계할 권리, 배상받고 치유 받을 권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변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기는커녕 점점 세계 짓밟으려는 한국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이며,  
사회정의의 기초가 반듯하게 놓일 때에야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고 지속가능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깊이 느끼며,

우리가 추구할 안전은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거래하거나 제각기 살아남자는 경쟁 속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연대로 공포와 비참에서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여기며,  
모든 참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애도와 기억, 사죄와 배상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반성하고 바꾸려는 실천임을 다짐하기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만하며 불의한 구조를 온존시키려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모든 참사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한국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책임을 담아 이 선언을 선포한다.

### 3. 원칙에 관하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는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들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선언에 담길 권리목록은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인권선언이 아니라 참사의 경험,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 이후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인권선언의 권리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가령 ‘인간 존엄성 존중’을 원칙으로 내세웠다면, 그 아래 나오는 구체적인 권리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만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호소하는 권리까지를 포괄합니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그 아래 나오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 조항을 다루기에 앞서 일반조항 내지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UN 및 국제 인권기구들 등에서 작성된 동시대의 국제인권문헌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우리는 4.16 인권선언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강조해야 할까요? 선언에 들어갈 권리항목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 2) 성안팀에서는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칙’, ‘평등의 원칙’, ‘연대의 원칙’, ‘피해자 존중의 원칙’ 등 네 개의 원칙을 꼽아봤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구체적 권리항목을 구성하는데 적합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성안팀에서는 각 원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설명이 충분한 것인지, 보완되어야 할 것은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시)

###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의 기초중의 기초이다. 존엄성을 계산해서도 안 되고 타협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모든 정책과 실천에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최우선은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어야 하고, 재난의 예방·구제·사후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누구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 **평등의 원칙**

인간 존엄성에 위계와 등급을 매기는 차별은 존엄성 훼손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다른 누군가에 비해 가치가 덜하거나 더한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한 사회가 안전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위험하다. 근원적인 평등이야말로 안전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적·신분·지위·나이·성별 등을 가진 사람이건 재난의 예방·구제·사후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 **연대의 원칙**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구조적 억압을 제거하려는 실천이 연대이다. 연대를 통해 시민들은 공동체적 삶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각종 참사는 연대의 고리가 약해졌을 때 발생하며 확대된다. 안전은 연대가 강화될 때 보장된다.

### **피해자 존중의 원칙**

참사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이기에 앞서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권에 기초해서 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의 권리 중 핵심은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실현, 배상, 재발방지과 제도개혁에 대한 권리이다. 이 권리들은 포괄적이고 상호 연관된 조치를 필수로 한다. 피해자는 필수적인 조치들 간에 거래나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 **3. 용어 정의에 관하여**

지난 4월 14일 원탁회의에 제출된 4.16인권선언 발의문에는 용어정의를 포함되어 있었 습니다. 인권침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우리의 선언이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그 이전 의 각종 참사들이 인권침해로 이해되지 않았으며 이후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배상과 보상의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을 당하였으며

올바른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경험을 반영합니다. 성안팀에서는 인권침해, 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유엔의 ‘재난경감국제전략’ 등의 문서를 참조해서 용어정의를 해봤습니다.

- 1) 용어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이것 말고 또 있을까요?
- 2) 인권침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서 무엇을 보완하거나 고쳐야 할까요?

### (예시)

#### **인권침해**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는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인권을 개인적 및 집단적 차원에서 침해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침해의 심각성은 침해된 권리의 성격, 침해의 규모, 피해자의 취약성, 침해가 끼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명권과 그에 따른 국가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관련하여 재난 위험을 방치하거나 그 영향을 줄이지 못한 정부는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다. 정부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재난 피해는 명백한 인권 문제이다. 모든 위험이 그 자체로 재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훨씬 취약하며, 사고 시 어떤 복원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단순 사고 또는 자연 재해가 인간이 만든 참사가 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행위를 취하지 않고, 복원력을 강화하지 않고, 효과적인 고통의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인권 침해이다.

#### **피해자**

피해자는 국제 및 국내 인권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인 침해 등을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겪은 사람이다. 피해자에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된다.

#### **참사**

참사는 소중한 생명의 상실, 엄청난 인간의 고통과 곤란, 또는 심각한 물질적·환경적 손실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재앙적인 사건 또는 이어진 사건을 의미한다. 참사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 4. 일반적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하여

보통의 권리선언이라면 구체적 권리 조항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순으로 나열될 겁니다. 그런데 4.16 인권선언은 참사와 관련된 특수한 인권문제를 다루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권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안팀은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들을 ‘일반적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일반적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목록을 최대한 압축하되 그 내용을 재난 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특화한 것은 그간 한국사회에서 숭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너무 낮고 피상적이란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보(배)상 받았으면 됐잖아’로 집약되는 인식에 맞서기 위해 유엔의 최신 기준들을 참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특히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성안팀은 유엔의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보장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 ‘불처벌투쟁원칙’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1) 성안팀이 제시한 권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상호의존적이므로 많은 목록이 많은 권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을 제안해주세요.

##### (예시)

##### ‘일반적 권리’

-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
- 알 권리 ① (진실의 추구) ② (정보에 대한 접근) ③ (의견과 표현의 자유)
- 권리를 위해 행동할 권리 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② (결사와 집회의 자유) ③ (프라이버시와 명예)
-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①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 ② (교육권) ③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 ④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 ‘피해자의 권리’

- 피해에 대한 인정
- 진실에 대한 권리
-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
- 배상에 대한 권리 ① (원상회복) ② (금전적 배상) ③ (재활) ④ (만족) ⑤ (재발방지)
-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

2) 우리가 선언할 권리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권리조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성안팀은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하는 권리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시)

####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사회 전반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신뢰 속에서 계획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및 권리를 위해 행동을 취할 자유가 인간의 안전이다. 생명·생존·안전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제적·환경적 및 여타의 위험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장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각종 재난 시에는 그 결과를 완화할 수 있을 긴급 구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

3)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돼온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과 억압에 많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로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제안해주세요.

(예시)

#### **피해에 대한 인정**

모든 피해자는 자신이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참사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참여는 진실규명, 재판,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개혁의 전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종자의 가족은 피해자의 행방과 운명을 알 때까지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포괄적인 제반 조치가 착수·완료되기 이전인 상황에서는 긴급하고 절실한 구제와 지원이 모든 피해자에게 당장 제공되어야 한다.

## **5. 의무와 책임**

재난 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일차적 의무는 당사국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의무 방기와 적극적으로 저지른 악행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국적기업 등 정부가 아닌(그렇지만 정부와 결탁한) 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가 아닌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기업 자체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업 등 권력집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시민들의 정치적 책임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성안팀은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자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기업의 의무, 언론의 의무를 항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져야 할 의무, 그에 따른 죄과에 대한 처벌과 책임 묻기는 시민이 져야 할 책임(연대할 책임, 집단적 기억을 만들고 전파시킬 책임, 권력에 대한 감시와 혁신 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의 책임, 시민사회의 정치적 책임,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시민의 정치적 책임으로 다뤘습니다. ‘노동자’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기업의 의무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1) 국가, 공무원, 기업의 책임과 시민의 책임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즉 참사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또한 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성안팀은 정부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기업의 의무, 언론의 의무, 교육의 책임, 시민사회의 정치적 책임,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시민의 정치적 책임을 다뤘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있을까요?

3) 각각의 의무와 책임의 내용으로 어떤 것을 선언하면 좋을까요?

#### (예시)

##### **정부의 의무**

정부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따라 그 관할권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진다. 특히 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시에는 그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택하고 이행할 우선적 책임을 진다. 정부는 그 관할권내 모든 행위자들에 대해 인권존중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기업의 의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는 분명한 정책을 채택하고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기업은

자사의 활동·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인권 침해와 위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조사·처벌·배상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규제 정책과 입법이 있어야 한다.

###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노동자를 비롯해 자신의 노동과 서비스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에서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이 존엄성은 자기의 인격과 안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노동자의 이런 권리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시민의 정치적 책임**

모든 시민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고 연대에 기초하여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참사 피해자와 관련하여 모든 시민은 그 피해 배상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며 참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만들고 전파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모든 시민은 참사를 야기한 정치와 경제의 구조를 혁신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구조를 만들 책임이 있다.

## 416인권선언운동 추진계획 및 진행경과



○ 추진단 등록 : 6월

각 지역, 공동체 등에서 최소 1회의 풀뿌리토론을 열고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추진단에 등록합니다.

○ 1차 전체회의 : 7월 11일(토)

추진단 전체가 모여서 풀뿌리토론 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 풀뿌리토론 : 7~10월

추진위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들을 모으고 풀뿌리토론을 진행하여 토론의 결과를 모아줍니다.

○ 2차 전체회의 : 일정 추후 공지

추진단 전체가 모여서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선언할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정합니다.

○ 범국민서명운동 등 전개 : 2016년 1~3월

416인권선언문을 만들고 선언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 2016년 4월

● 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에서 신청하세요.

● 추진단 1차 전체회의 안내

7월 11일 오후 1시, 수운회관(서울 종로구, 안국역)

---

## **[첨부] 4.16인권선언운동 진행경과**

### **1. 존엄과 안전위원회, 인권선언을 모색**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인권활동가들을 중심으로 4.16참사 대응을 위해 구성된 기구다. 4월 16일 이후 펼쳐진 현실에서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을 두어 참사와 인권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는 한편, 우리 사회가 생명과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인권선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권활동가들과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노동안전보건단체, 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인권선언운동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2014.5.13. 존엄과안전위원회 제안 및 활동 시작

2014.10.14. 인권선언 워크숍. 이후 기획회의 시작

### **2.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4.16인권선언 추진을 제안**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16인권선언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2014년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대회>를 열었다.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기존 참사 피해자들이 한마음으로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말해주었고, 참사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들이 선언되어야 하는지 밑그림을 제시했다. 추진대회 이후 인권선언의 틀을 만드는 성안팀이 구성되어 집중토론을 시작했으며 인권선언 기획팀을 구성하여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갔다.

2014.12.10.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대회

2015.2.5. 성안팀 1차 회의. 이후 1~2주 간격으로 회의 진행하며 집중토론

### **3. 인권선언 제정위원회 준비회의 개최**

2015년 3월 12일,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준비회의를 열어 이후 인권선언운동을 추진할 기구 구성에 대해 토론했다. 인권선언 추진에 함께 할 제정위원 50여 명이 모여 제정위원회 구성건과 추진 로드맵 건을 논의하였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놓되 적극적인 책임을 맡아줄 일정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4월에 다시 모여 4.16인권선언 제안문을 검토하여 이후 전국적인 풀뿌리토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실행을 맡을 단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위원들 중 자원을 받아 실행팀을 구성했다.

2015.3.12.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준비회의. 이후 실행팀 체계로 추진

### **4. 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인권선언 실행팀은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와 진실과 거래시키려는 배보상 절차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조직했다. 인권선언운동을 벌여가기 위해 전국적으로 304인의 추진위원을 섭외하기 시작했고 발의문 채택을 위한 논의 준비를 시작했다.

2015.4.8.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인권옹호자 기자회견 개최.

2015.4.14. 416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2015.5.7. 416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416연대 주요 사업으로 채택.

2015.5.9. 416인권선언 2차 원탁회의

##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 1. 인권에 대해 배우고, 제안문도 함께 써요.

○ 제안문 쓰기에 함께 해주세요.

- 4.16인권선언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권선언이 과연 사회적으로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인권선언운동에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제안문’을 함께 써주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다양한 ‘제안문’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4.16 이후에 자신이 경험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인권선언 제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4.16참사의 희생자 가족 분들도 ‘인권선언 제안문’을 위한 글’을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권선언 제안문’ 작성에 함께 해주세요.
- 이미 몇분의 제안문은 언론 기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선언추진단에서 만드는 4.16인권선언 웹진에도 다양한 제안문이 실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추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제안문 쓰기’에 함께 해주세요.

○ 인권을 함께 공부해요.

- ‘세계인권선언문’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강제력이 없는 선언이지만 각 국가들의 헌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권선언은 이처럼 큰 참사와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왔기 때문에 그 안에 인권의 역사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권선언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권선언 제정운동을 계기로 하여 인권에 대해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권선언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인권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모임을 하고자 하거나 지역에서 인권 강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권선언추진단 실행팀에서 각종 자료와 커리큘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고양지역에서는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양인권학교’를 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 2. 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를 현실운동으로 만들어요.

○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입법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할 권리’는 그것은 국민안전처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알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런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 안전의 권리를 조금씩 확보해나갈 수 있습니다.

- 인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온 소중한 성과입니다. 노동자와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 관리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례입니다.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알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어나가는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많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이런 참사가 벌어지도록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와 공무원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에서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임자처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중적 서명운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지켜나가요.

- 인권선언 제정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탄압해왔습니다. 물대포와 최루액 등 집회방해, 연행과 구속, 소환장 남발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 그 진실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가 너무나 소중한입니다.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4.16연대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해서 사법처리를 당하게 된 이들의 공동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법정 싸움도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법률가들과 대응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기금도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행동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권리를 ‘운동’으로 만들어요.

- 4.16 참사 이후에 우리가 느꼈던 많은 고민들과 분노를 인권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되도록 하는 작은 실천이 매우 소중한 때입니다. 각자 속한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인권의 항목들을 다시 권리로 전환시키는 다양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 4.16 인권선언을 제정하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평등한 애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두 분 선생님을 여행자보험에서도 제외했고 순직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조차도 차별받는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민간인 잠수사 사망 이후에 오히려 동료 잠수사가 과실치사로 기소되자, 이에 분노하여 해경의 책임을 묻는 고발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활동이 안전과 애도와 보상에서 평등할 권리라는 인권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 또 4.16 인권선언에서는 언론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세월호참사에서 오보와 명백한 왜곡보

도, 정부 이야기 베껴쓰기라는 언론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돈’을 흔들며 왜곡한 것도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송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왜곡 보도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권선언’에서 이야기하는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 3. 인권선언을 더 널리 퍼뜨려요.

○ 더 많은 시민들이 인권선언에 관심갖도록 알려요.

- 인권선언에 대한 풀뿌리 토론이 7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풀뿌리 토론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권선언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4.16참사를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또다른 우리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권선언운동의 내용을 알리는 선전물을 많은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권선언’의 내용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4.16참사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자 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미안해했었는지 돌아보고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스티커 설문 등을 통해서 존엄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의견을 모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지역별로, 영역별로 인권선언을 만들어요.

- 각 지역별로 인권선언에 대한 토론을 하고 토론된 내용을 모아서 하나의 인권선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권선언은 우리 모두의 인권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선언은 대중적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시민들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인권선언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해설문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 인권선언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언어로 인권선언을 해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목소리, 청소년의 목소리,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 등이 생생하게 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영역별로, 각자가 속한 공간에서 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의미에 맞는 인권선언을 만들어보는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가족협의회에서는 인권선언운동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모여 유가족의 언어로 ‘인권선언’ 쓰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지역에서도 지역의 고민과 상황에 맞는 인권선언 쓰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인권선언이 이렇게 퍼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도 확대되면 좋겠습니다.